

몽골유도팀·국가대표후보팀 초청, 국제교류전·합동훈련

'유도 메카' 순천, 유도열기 뜨겁다



지난 10일부터 순천팔마트레이닝센터에서 스토브리그를 펼치고 있는 유도 국가대표후보 등 참가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몽골선수 15명·국가대표후보팀 55명 등 300여명 참가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스토브리그'...기량 향상은 덤

순천시가 유도열기로 뜨겁다.

전남유도회는 21일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새로 건립된 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에서 몽골유도팀과 국가대표후보팀을 초청해 국제교류전 및 합동훈련 등 스토브리그가 펼쳐지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가 주최하고 전

남유도회와 순천시유도회가 주관하는 이번 유도스토브리그는 몽골유도선수 15명을 비롯해 국가대표 후보팀 55명, 마산대 15명과 세한대, 순천공고, 목포고, 여수시청, 순천시청 등 도내 70명 등 총 300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했다.

이들은 합동훈련과 다양한 경기를 통해 국내·외 유도교류는 물론 유도 유망주에게는 한수 위 기량을 보고 배우는 체험의 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스토브리그에 참가한 선수들은 "몽골선수와의 훈련을 통해 경험도 쌓고 국가대표 후보팀의 노하우와 기술을 많이 배우고 있다"며 "최고의 시설에서 최고의 경험을 하게 해준 순천시의 전남유도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종안 전남유도회장은 "이번 행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대회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순천시의 소통을 강화해 '유도 메카' 순천을 기반으로 전남 유도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팔마유도트레이닝센터 준공으로 각종 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 등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희중기자

광주시장애인국민센터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 획득

2019년 이어 2회 연속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안전관리 수준 및 활동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KSPO 45001)을 획득했다.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KSPO 45001)'은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안전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관리의 표준 모델에 기여한 시설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안전경영시스템 분야, 안전경영 시설 및 운영 수준 분야, 안전 의식도 분야 등의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광주시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장애인체육시설 중 최초로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KSPO 45001)을 취득했고,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2회 연속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코로나19 등 체육시설에 대한 각종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왼쪽)이 최기돈 광주장애인체육회 체육진흥부장에 인증패를 전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공>

인정받은 것이다.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체육시설 안전경영인증(KSPO 45001) 획득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질의 시설이 되도록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운영·관리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 MBN 여성스포츠대상

쇼트트랙 여제 최민정(24·성남시청)이 2022 MBN 여성스포츠대상 영예를 안았다.

최민정은 21일 MBN 여성스포츠대상 시상식에서 대상과 함께 상금 1천만 원을 받았다.

최민정은 올해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 지난 2월에 열린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500m에서 금메달, 여자 1,000m와 여자 3,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올림픽 직후에 열린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며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최민정은 "최고 권위의 상을 받아 매우 영광스럽다"며 "앞으로 많은 여성 스포츠인들이 큰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은 여자 축구의 전설 지소연(31·수원FC)이 받았다. 그는 "2023년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우수상은 한국 펜싱 여자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 2관왕에 오른 예페 강판송(29·부산시청)과 여자 골프 이소영(25)이 공동 수상했다.

페어플레이상은 비유럽팀 사상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정상에 오른 18세 이하 여자핸드볼대표팀이, 영플레이어상은 ISU 피겨스케이팅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여자 싱글에서 은메달을 딴 신지아(15·영동중)가 거머쥐었다.

인기상은 스포츠클라이밍 서재현(19·노스페이스클라이밍), 찰린지상은 휠체어펜싱 권호경(22·홍성군청)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전경

<광주매일신문 DB>

광주여대, 배구·농구부 창단한다

유니버시아드체육관 활용...스포츠 명문대학 도약 선수단 구성 완료 내년 1월9일부터 합동 훈련 돌입

광주여대가 배구부와 농구부를 창단한다.

광주여대는 체육학과를 신설하고 배구 11명, 농구 6명의 2023년도 신입생을 모집했다.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3회 연속 배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며 한국 여자양궁 사관학교로 명성을 높인 광주여대는 양궁에 이어 배구, 농구부를 육성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광주여대는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국제규모 체육관을 활용, 광주·전남의 배구·농구 인재를 육성, 스포츠 명문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특히 배구부는 광주를 연고지로 빛을 여자배구 붐을 일으킨 페퍼커피축은행 A1페퍼스와의 교류를 통해 전력 향상은 물론 연계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

는 복안이다. 새학기 창단식을 앞두고 내년 1월9일부터 선수단 합동훈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팀 운영에 돌입한다.

이에 앞서 농구부는 영광 범성포에서 피지컬트레이닝을 진행하며 팀워크와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광주여대 관계자는 "스타 산실로 떠오른 양궁부의 활약은 국내를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사례"라며 "배구와 농구 역시 공격하고 투명한 선수 육성 시스템을 통해 대학 최고의 팀으로 성장, 광주여대를 빛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스프린트 경기 시상식 기념사진. 왼쪽부터 김채연, 나윤서, 키타오카 마리아. <전남도체육회 제공>

전남미용고 나윤서 3관왕·MVP

한·일 친선학생사이클대회, 전남체고 김채연 금1·은1·동2

전남미용고 나윤서와 전남체육고 김채연이 2022 한·일 친선학생사이클대회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이며 대한민국 사이클의 미래를 밝게 했다.

전남자전거연맹은 21일 "지난 16-18일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 그린돔경기장에서 열린 2022 한·일 친선학생사이클대회에서 나윤서가 3관왕을 차지, 최우수선수로 선정됐고, 김채연이 금메달 1개 등 4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한일 사이클 19세 이하 7명씩 선발됐으며 전남은 나윤서와 김채연이 이름을 올렸다.

나윤서와 김채연은 스프린트경기에서 각각 11초836, 11초916의 기록으로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경륜경기에서는 나윤서가 12초168로 금메달, 김채연이 동메달을 차지했다.

또 팀 스프린트 경기에서는 나윤서와

김채연이 팀을 이뤄 47초94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합작했다.

500m 독주에서는 나윤서가 37초435로 은메달, 김채연이 37초473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따낸 나윤서는 최우수선수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다.

나윤서는 빛가람중 재학생 시절 2020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김채연은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검증 받은 선수다.

지난 8월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열린 2022 UCI 주니어트랙사이클 세계선수권대회 500m 독주에서 금메달, 개인 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0월 열린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자전여 19세 이하부에서 전남대표로 출전해 금메달 5개를 따내는 기쁨을 토했다. /박희중기자

변상일, 생애 첫 메이저 세계기전 결승행

춘란배 탕웨이싱에 역전승...리쉬안하오와 결승 3경기

변상일(25·사진) 9단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연출하며 메이저 세계기전에서 처음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랭킹 2위 변상일은 21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14회 춘란배 세계프로바둑 선수권 준결승에서 중국의 탕웨이싱(29) 9단에게 262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이로써 변상일은 2012년 입단 이후 처음 메이저 세계대회 결승에 올라 첫 우승을 노리게 됐다.

이날 백을 잡은 변상일은 대국 중반까지 탕웨이싱의 노련한 운영에 휘둘러 패색이 짙었다.

그러나 중반 들어 우상귀에서 패싸움을 시작하며 판을 흔드는 변수를 만들었다.



패싸움 과정에서 쌍방 실수가 나왔지만, 변상일은 상변을 관통하며 죽었던 좌상내 대마까지 살려내 전세를 뒤집었다. 졸지에 역전당한 탕웨이싱은 하변 백진에서 수를 내려고 시도하다 실패하자 돌을 던졌다.

이날 함께 4강전에 나섰던 한국 랭킹 1위 신진서(22) 9단은 중국 랭킹 2위 리쉬안하오(27) 9단에게 170수 만에 불계 패배를 당했다.

변상일과 리쉬안하오의 결승 3경기 일정은 미정이다. 통산 상대 전적은 변상일이 1승 3패로 뒤져 있다. /연합뉴스

광주장애인생활체육 보치아어울림대회 성료

올해를 빛낸 선수 시상도

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한 2022 광주장애인생활체육 보치아어울림대회가 지난 20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이번 대회는 나눔자립센터 소속 '나눔보치아클럽' 등 10개 클럽에서 선수 80명과 진행요원 등 12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향상 보치아 선수들의 뒷바라지만을 했던 보조자, 자원봉사자 등이 직

접 선수로 참가해 기량을 겨루고 돈독한 우정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광주장애인보치아연맹은 이재식 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1년 보치아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위해 힘써 온 결과,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종합 종합 2위 달성과 강선희(BC1/지체장애) 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돼 2022 바레인보치아월드컵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 페어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대회가 끝난 후 열린 2022 광주장애인보치아 송년행사에서는 올 한해를 빛



낸 체육인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강선희가 최우수선수상, 조면기가 우수선수상, 나미숙이 신인선수상을 수상했

고, 이이임 심판이 심판상을,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흥선3인조 BC1 BC2 선수상, 나미숙이 신인선수상을 수상했